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10001

Phone : 646. 832. 7397

212. 736. 8500 (EXT 355, 384)

Website : <https://stfrancisnyc.org/>

Email: seoulosb@gmail.com

주임신부 : Brian Jordan, OFM

지도신부 : 이윤희 루카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luke0829ofm@gmail.com

전교수녀 : 안혜진 마리루시 (롯데포교베네딕도회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이지연 안나레지나 917. 282. 1662

제1독서 | 여호 5,9ㄱ-10-12

화답송 | 시편 34(33),2-3.4-5.6-7(◎ 9ㄱ)

(후렴)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 라.

○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 주님을 자랑하리니,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여라. ◎
 ○ 나와 함께 주님을 칭송하여라. 우리 모두 그 이름 높이 기
 리자. 주님을 찾았더니 응답하시고,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
 셧네. ◎

신앙고백 : 사도 신경

† 전능하신 천주 성부

◎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밀줄 부분에서 고개를 숙인다.)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사순, 부활시기에는 사도 신경을 할 수 있다.” 「로마 미사경본」

제2독서 | 2코린 5,17-21

복음환호송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말하리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

복음 | 루카 15,1-3.11ㄴ-32

영성체송 | 아들아, 네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기뻐하여라.

성가 | 입당성가 118. 1~2 예물준비 35
 영성체 169 파견성가 280. 1~2

미사 봉헌

연미사 지향

한정수 비오 - 기일

민병택 베드로 - 5주기를 추모하며

양민자 영혼을 위하여

이성영 바오로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이창식 베드로, 이덕희 토마

민우식 요셉, 이공남 마리아

생미사 지향

신정희 마리아의 건강회복

오인희 막달레나 - 수술 후 감사

이요한 가정 - 영육간의 건강 위하여

전은진 크리스티나의 영육간의 건강

이로잔 캐더린의 영육간의 건강

연령회 회원들

성모회원들의 영육간의 건강

고은경 모니카

이선경 아녜스

정종철 안드레아

날짜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	성찬봉사	복사
3월 30일	조소연	민완준	장민우	이경자	김종선	이예진 한서희
4월 6일	이지훈	송명근	민재인	민덕미	유정옥	김수현 조성윤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 미사	매월 2번째 토 18:00 아래 성당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신부님께 직접 문의
유아 세례	매월 2번째 주일 미사중 *신청: Sr. 마리루시
봉성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 Sr. 마리루시
예비신자 교리 견진 교리	일반인을 위한 교리 *신청: Sr. 마리루시 환자, 어르신을 위한 방문교리 *신청: Sr. 마리루시

재속프란치스코회 뉴욕 한국순교자형제회 월례회
(Monthly Meeting: N.Y Ordo Franciscanus
Saecularis: Holy Korean Martyrs)

일시: 매월 첫째 주일 AM. 11:00-PM. 4:00
장소: 프란치스코 룸
대상자: 지원자 및 양성반, 회원(ofs 종신서약자)
문의: 646. 685. 7788 봉사자 원혜미 엘리사벳

성주간 전례 안내

4/13	주님 수난 성지주일 (Palm Sunday)	AM. 09:15
4/17	주님 만찬 성 목요일 (Thursday of Holy Week)	PM. 7:00
4/18	주님 수난 성 금요일 (Good Friday of the Lord's Passion)	PM. 7:00
4/19	파스카 성야 (Easter Vigil)	PM. 5:00
4/20	주님 부활 대축일 (Easter)	AM. 09:15

* 4/19(토)-4/21(월)까지 고해성사 없습니다.

교우들을 위한 사순 판공성사

일정: 4/6, 4/13 PM.2:00-5:00
고해사제: Fr. 이웅희 루카. 장소: 사무실
신청: 646. 832. 7397(Sr. 마리루시)

어린이 사순 판공성사

날짜: 4/6 미사 전 08:30~08:50 아래성당

판공성사표

사순시기 중 받은 모든 고해성사는 판공성사로 간주 됩니다. 본당 또는 다른 곳에서 고해성사를 보신 교우분들은 성사표를 기록하여 사무실 앞 박스에 넣어주세요.

공동 십자가의 길

사순시기동안 매 주일 08시 50분부터 대성당에서 십자가의 길이 봉헌되오니, 교우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날 짜	주관 단체	인원
3/16(일)	울뜨레아	각 단체마다 봉사자 4명 :십자가 1 주송1, 초2
3/23(일)	요셉회, 성모회	
3/30(일)	성령기도회, 성소후원회	
4/06(일)	청년회	
4/13(일)	사목회	

주일학교 교리교사 모집

유치부 & 초등부(3명), 중고등부(2명)
지원자격: Back Ground Check 완료하신 분
문의: 교감 정승현 플로라 646. 287. 2582

2025 레지오 마리에 단원 모집

"레지오마리에"는 성모님과 함께 기도와 봉사로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는 평신도 사도직 단체입니다.

구세주의모후Pr. 회합: 매주일 8am 단장: 347. 633. 3767
희망의 모후Pr. 회합: 매주목 6pm 단장: 347. 514. 5783
우리즐거움의원천Pr. 회합: 매주일 11:10am
단장: 929. 208. 5147

* 모집 대상: 세례 받은 남녀 교우(어른, 청·장년)

사회복지 분과 위원 모집

사회복지 분과에 함께 하실 분들을 초대합니다.

모집 인원: 4명
문의: 강호영 안드레아 516. 521. 3113

미동북부 여성 40차 꾸르실로 수강자 모집

일정: 4.3(목) - 4.6(일) 3박4일. 뉴튼수도원
신청: 929. 444. 1411 간사 민완준 필립보

부활 꽃 봉헌

부활절에 사용할 꽃을 봉헌하실 분은 신청 바랍니다.
신청: 646. 832. 7397(Sr. 마리루시)

4월 성사반 개설

어린이: <첫영성체반>
학생·성인: <견진성사반>
(2025년 3월 이전 세례성사 받으신 분들)
문의: 646. 832. 7397(Sr. 마리루시)

주일 미사 후 친교 모임

다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 분, 새로 전입오신 분, 처음 뵙는 분들께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환대’의 공동체 함께 만들어가요!

성당 출입 시 직원분들께 따뜻한 인사 부탁드립니다. 이 옷에게 보내는 환한 웃음은 하느님께 드리는 작은 사랑의 선물입니다.



+ 3월 성 요셉 성월 기도문

- 우리 주 예수님을 기르신 아버지시요 정결하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이시며 임종하는 이의 수호자이신 성 요셉께 간절히 청하오니
- 하느님께 빌어 주시어 저희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충실히 따르게 하소서. 또한 죽을 때에 저희를 지켜 주소서.
- ◎ 아멘.

투병 중이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택영알버트 이옥기수산나 이남석베드로 김옥지아가다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정창동폴리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박재호베네딕트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옥토
한중식 전문점

(646) 833-7864
1 E 33St. NY, NY 10016
(33가, 5애비뉴-매디슨 사이)
www.octo.nyc

WONJO
K BBQ since 1993

(212) 695-5815
23 W32St. NY, NY 10001
www.newwonjo.com

UDON Lab
udon & izakaya

(646) 838-5338
43W 32nd St. New York, NY 10001
www.udonlab.com @udonlab_nyc

더큰집
The Kunjip

(212) 564-8238
32 W 32St. NY, NY 10001
www.kunjip.nyc

Clear Laser CITY CLINIC

얼굴 리프팅 212.697.1802
색소 미백 레이저 카카오톡: clearlascity1
주름 보톡스, 필러 5th Ave & 42nd St
뉴욕 도서관 앞

이민/부동산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한국 남도 7박8일 관광

지도자, 경영인 정신이해와 문화 역사, 건강 체험. 혼자서 체험할 수 없는 남도 여행
고향사랑 국제 연대
847)269-9422
131 E 69th St. New York 10021

마리아 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TEL. 212-594-7773, 646-808-7322

Clara Clara Inc.
맨하탄 사무실이나 기타 공간이 필요하신 분 연락바랍니다.
(917) 596-1460
306 W. 37th Street
New York, NY 10018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917) 370-0394
krishap@nestseekers.com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WEST WINE & LIQUOR
린다킴 데레사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0AM-10PM / SUN:12PM-9PM

Kwangsuk "Joseph" Kim
공인 부동산 중개사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408-220-4569
Furumoto Realty of New York City, Inc.
www.furumoto.com

MIDTOWN SMILE DENTAL
hello@midtownsmiledental.com

임지수 마리아
(212) 532-8666
36 E 36th St. Suite 1K
(36가, 매디슨-파크 사이)

머무는 자리



[방탕한 아들과 되찾은 아들]

보통 ‘돌아온 탕자’, ‘방탕한 아들’로 기억되는 예수님의 비유는 작은아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존 맥켈란 스완은 돼지를 치던 아들을 그립니다. 얼굴도 보여주지 않은 채 어두운 들판을 향한 아들의 등에는 절망이 가득합니다. 아들 뒤에는 붉은 꽃이 피어있고 물독도 있지만, 그는 아직 깨닫지 못합니다. 다만 간절한 손만 하늘을 향할 뿐입니다. 성경은 이 비유의 제목을 ‘되찾은 아들’이라고 적습니다. 아버지가 주어이고 주인공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뒤돌아보길, 우리를 되찾길 기다리십니다.

- 오주열 안드레아 신부 | 삼양동(선교)성당 주임-

친해지는 일

임여주아네스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김송순 작가의 동화 《반반 고로케》의 주인공 민우는 엄마의 재혼이 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다정하게 한글을 가르쳐주던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신 지 3년째. 아직 아빠의 빈자리가 큰 민우에게, 엄마와 결혼한 이사드 아저씨는 낯설기만 합니다. 아빠와 닮은 데가 많아서 마음이 끌렸다는 엄마의 말이 민우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저씨는 엄마보다 더 먼 나라에서 와서 엄마보다 우리 말이 서툴고, 아빠에겐 없던 콧수염도 있고, 무엇보다

이사드 아저씨는 무슬림이어서 햄이 들어간 음식을 먹지 않는데, 민우도 그러길 바랐던 것이죠. 아빠와 추억이 서려 있어 민우에게는 소울푸드와도 같은 고로케를 먹지 말라니, 민우는 아저씨가 한층 더 미워 집니다. 엄마는 아직 서로를 잘 몰라서 그런 거라며 위로하지만 이미 마음의 문이 닫힌 민우에게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민우에게 이사드 아저씨는 조금씩 천천히 다가 갑니다. 늦도록 집에 오지 않는 민우가 걱정되어 찾아다니고, 민우가 좋아하는 망고주스를 내밀고, 달리기를 좋아하는 민우에게 제대로 호흡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처음에 아저씨를 밀어내기만 하던 민우도 아저씨의 진심을 알게 되면서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을 느낍니다. 민우가 학교 축제에 달리기 선수로 출전한다는 얘기를 들은 아저씨가 “민우! 대단해! 아빠 닮았구나.” (136쪽)라고 말했을 때는 심지어 웃음이 날 뻔도 했습니다. 주먹을 불끈 치켜세우고 “민우! 화이팅!” (137쪽)이라 외치는 아저씨에게, 드디어 민우도 활짝 웃어줍니다. 그동안 아저씨는 민우가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 고로케를 좋아하는 마음을 잘 이해하게 되었고, 그 노력이 민우에게도 무사히 전달되었던 것이죠.

사람과 사람이 친해지는 일에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너무나 잘 맞아 신기해하며 빠르게 친해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건 매우 드문 일입니다. 대부분은 처음에 서로를 잘 몰라서 실수도 하고 오해가 쌓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나의 감정을 앞세워 상대를 비난하기만 하면 관계는 거기에서 끝나게 됩니다. 내가 실수했을 때 용기 있게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며, 오해가 생겼을 때 대화를 통해 진심을 나눌 수 있다면, 두 사람의 거리는 이전보다 한층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도 관계의 어려움입니다. 한 사람이 손을 내밀었을 때 상대방이 기꺼이 그 손을 잡아주어야 하는 것이죠. 이사드 아저씨의 노력을 민우가 받아주었던 것처럼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는 이렇게 지난한 여정을 거쳐 왔습니다. 얼마나 귀한 인연인가요. 기쁜 시간도 힘든 시간도 함께 거쳐 온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는 인사 한마디 건네 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